

		팀 장	단 장	공 람
		홍영	황가	
보도매체		일 시	보도크기	

경기일보

2008년 8월 (月)
4 일

화옹호 간척지 개발 '암초'

道, 해양레저단지 등 추진... 농수산부 "주민합의 없이 농지 용도변경 불가"

경기도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해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화옹호 간척지를 이용한 개발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6천212만㎡의 화옹호 간척지를 이용해 해양레저복합단지, 첨단농업단지, 미니버선크스튜디오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옹호 간척지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농림수산물부가 화옹호 일원에 대한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수산부는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인데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로 계획된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화옹호는 당초 농지활용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양해를 얻어 시작된 사업"이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화옹호 일대에 대한 토지이용분석을 근거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정부계

획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농수산부가 허락을 해도 현재 간척사업 시행자인 농촌공사가 4천억원을 투입해 5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서해안개발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옹호 간척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계획 수립 초기부터 감안됐던 것으로 도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